

# 현대카드의 새로운 여름 휴가 트렌드 '맛캉스' 제안



현대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맛캉스' 혜택을 소개했다. 전통적인 여름 휴가 시즌인 7~8월은 여행 관련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외식 매출도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지난 해 현대카드 개인회원들의 월별 외식 매출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8월은 109.9를 기록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7월도 전체 12개월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휴가지 외식 매출과 더불어 도심 속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일명 '맛캉스' 매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올 여름 '맛캉스'를 즐기고자 하는 회원들을 위해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 중이다. 우선, 현대카드 M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은 다양한 외식 브랜드에서 M포인트를 활용해 경제적으로 외식을 즐길 수 있다. 파파존스와 피자헛, 도미노피자 등에서 이용금액의 50% M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비롯해, 웨이크썬, 제일제면소, 온더보더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용금액의 20~3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

## 7~8월, 연중 외식 매출이 가장 늘어나는 시기

- 휴가지 외식 매출과 맛있는 음식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맛캉스' 매출 증가

## 현대카드 여름 '맛캉스' 외식 혜택

- **M포인트** | 다양한 외식 브랜드에서 이용금액의 최고 50% M포인트 결제
- **클럽 고메** | 플래티넘 이상 회원에게 서울/부산 최상급 레스토랑에서 할인 혜택 제공
- **현대카드 쿂� 라이브러리** | 12,000원 이상의 음식 관련 서적과 음식을 직접 맛보고 만들어보는 총체적 경험 제공  
올 여름에는 맥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

스(목)나 뷔스(일), 매드포갈릭(주말), 계절밥상(수) 등에서는 지정된 요일에 추가 M포인트 결제 혜택도 제공한다. 8월에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뷔스에서 이용금액의 절반을 M포인트로 결제하는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카드 플래티넘 이상 카드를 소지한 회원들은 '스시효', '유니끄', '부로일' 등 서울과 부산의 최상급 레스토랑 150여 곳으로 구성된 '클럽 고메' 가맹점에서 1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레스토랑별 할인 대상 카드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여름 휴가 중 음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원한다면 '현대카드 쿂� 라이브러리'를 방문하면 좋다. 서울 압구정로에 위치한 현대카드 쿂� 라이브러리는 음식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12,000원 이상의 음식 관련 서적을 필두로 음식을 맛보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는 것. 특히 올 여름에는 '맥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쿂� 라이브러리 1층에는 다채로운 맥주를 10ml 단위로 맛볼 수 있는 '비어 텀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7월 20일과 8월 3일에는 맥주 양조 과정에 대해 배우고 맥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홈 부어링 클래스'가 진행된다. 8월 14일에는 맥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이벤트도 개최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외식 결제가 늘어나는 7~8월의 계절적 특성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현대카드 회원들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월별 외식 지수

